

무색무취무미, 위험한 방동제

글 편집실



산업현장의 거울에는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 바로 방동제 음용사고다.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동제는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게다가 무색, 무취, 무향의 투명한 액체이기에 표면적으로 물과 매우 흡사하다. 이를 물로 착각하기 쉬워 중독사고를 비롯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방동제 음용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륨, 계면활성제, 멜라민 등 독성 성분을 지닌 액체로 구성돼 있어 음용 시 구토, 헛구역질,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방동제를 소량이라도 마셨다면 억지로 토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방동제 음용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수를 제공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식수 용기에 별도로 마시는 물 표기를 해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방동제 음용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1. 방동제 희석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드럼통 필수)
2. 방동제를 페트병에 덜어서 사용하지 않기
3. 방동제 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4. 방동제 취급 작업장 내 MSDS 비치 또는 게시
5. 방동제 사용 노동자 MSDS 교육 실시
6. 방동제 사용 시 허가받은 제품 외 사용금지

방동제 경고 표지 예시본

용기 앞면 및 뒷면에 부착

